

헬로십교회

# 우리 하나되어

## 제1회 오케스트라 콘서트

입찰 경매(Silent Auction)의 현장

고등부 졸업만찬

인터콥 비전스쿨 졸업식

‘참된 사랑은 기다린다’ - 순결서약



# “참된 사랑은 기다린다”





#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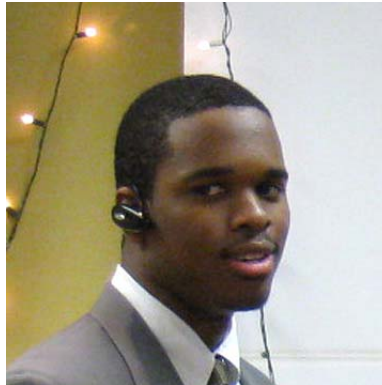
매년 어머니날 주일이면 중고등부 학생들은 ‘참된 사랑은 기다린다’ 반지서약식을 한다.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와 하나님의 성결을 오래 간직하겠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날이 올해로서 15회째이다. 올해 MD에서 20명의 학생들이 새로이 서약을 했고 다른 학생들은 재헌신 혹은 다음에 바를 훈련을 받은 후에 하겠다고 기다린다. 훈련받은 학생들 가운데 간증을 제출한 몇을 읽어본다.

## Can True Love Wait ?

By Troy Agard

트로이 아가드

21세기에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은 우리가 대면해야 하는 가장 주요한 투쟁 중에 하나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성관계를 갖는 친구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고, 또한 ‘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대중음악이 있다. 이젠 더 이상 ‘성’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어졌고, 오히려 하나의 취미활동처럼 되어져 버렸다. 성관계를 하는 친구들은 부러움을 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무시를 당하게 된다. ‘성’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본이 되어져 버렸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많은 상점들의 쇼윈도를 지나면서 일부분 노출상태로 상품들을 선전하는 모델들을 보게 된다. 우리가 ‘후터스(Hooters)’라는 식당에 가면 음식보다 더 입맛을 돋구는 종업원들의 의상을 보게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여자애들을 보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취욕보다는 자신들의 외모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각 세대에 보면 점점 어린 나이에 ‘성’에 대해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성’에 대한 유혹이 많은 세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아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헬로칩교회를 나오기 전 나의 삶은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나의 영적 상태는 좋지 않았다. 난 7살 때

As a teenager growing up in the 21<sup>st</sup> century, sex is one of the main conflicts that we are forced to deal with. In high school we are faced with friends who are having sex, fellow students and teachers who are getting pregnant, and television shows/popular music which influences sex. The sacredness of sex is no longer valued how it should be, but has been turned into an extracurricular activity. Those of us who have sex are envied and those of us who don't are looked down

upon. Sex has become the basis of every action we make.

When we go to the mall we pass by store windows advertising various products through models that are partially exposed. In restaurants like Hooters, we see waitresses who are dressed in a fashion that is more appetizing than the food they are serving. We have young girls who, when they get out of high school, they reply on what's plastered on their body rather than what resides inside their mind to achieve. With each generation there are children who are starting to learn more and more about sex at younger ages. With influences like these how are we supposed to say “NO”?

My life prior to joining NCFC was not bad, but it also wasn't spiritually great. From age 7 to age 13, I attended a Catholic school that had an average academic system, an average athletic system,

부터 13살까지 그런대로 평범한 학업과 운동, 그리고 영적 교육시스템이 갖추어진 가톨릭학교를 다녔다.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난 그저 평범한 생활을 해 왔다. 내 생활이 어떻게 평범한 수준만을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훌륭한 삶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내가 6년 동안 가톨릭학교를 다니면서 매년 종교과목을 들었었다. 그 수업은 마리아와 요셉을 시작으로 아기 예수님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얘기들을 들려주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생님은 학업 시간 중에 성경공부와 교회 가기를 강요하셨다.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 후 몇 년 동안 내가 믿음에서 멀어져 간 근본적인 이유였다. 교회에선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했고, 천주 교리만을 배워야 했으며, 또 천주교만이 진실한 종교임을 배웠다. 학생들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얘기하도록 권장하지 않았다. 이런 교육을 통해 종교가 마치 ‘선전 운동(Propaganda)’처럼 느껴졌고 결국엔 등을 돌리게 되었다. 난 8학년 때에 공립학교로 돌아왔고 새로운 길, 즉 내가 생각한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 내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던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 4년 동안 전보다는 나은, 하지만 최상의 삶이 아닌 생활을 하던 중 2007년 연말에 친구의 초청으로 헬로쉽교회 겨울수양회를 참석하게 되었다. 첫째 날에는 단지 나 혼자만이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에 너무 오랫동안 가보지 않은 탓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 주위 사람들을 지켜보니 내가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위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자기 자신들을 드리고 있었다. 하나님이란 주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어떤 것 보다 훨씬 더 컸다. 둘째 날 아침에는 정말 집에 가고 싶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 그

and an average spiritual system. With this in place, I grew to have an average life. But how was I to achieve greatness in my life when I was around constant average expectations? For the six years that I attended Catholic school, I took a religion course every year. The course started out talking about Mary and Joseph and the infant Jesus in a very basic sense. As I progressed in school the teachers started to make us study the bible and go to church during school time. As great as that sounds it was just the thing that drove me away from my faith for the next following years. In church we would be lectured on the upcoming political elections, talk only of Catholicism and how it is the only true religion, and weren't encouraged to voice our own opinions. During this process I turned away from religion thinking it to be propaganda. I returned to public school in 8<sup>th</sup> grade and started a new track that I thought was the correct way to live life. I didn't smoke or drink, which was good, but I also didn't embrace God.

At the end of 2007, four years after leading this life which was better than before but still not the best life, I was invited by one of my friends to go to a church winter retreat hosted by NCFC. The first day I felt uncomfortable not because I was the only non Korean, but because I was placed in an environment that I hadn't been situated into for a very long time. Around me there were people worshipping and singing and giving themselves to something I hadn't known for a while. The topic of God was more of something I knew about than knew personally. By the second morning of the retreat, I really wanted to go home, but I decided that I had already been put in this scenario so I might as well try once more to embrace it. Ever since then I have tried hard not to miss a day without thanking God and appreciating him for all he






냥 한 번만 더 참고 있어보자고 결심했다. 그 이후 부터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와 이 세상에 베풀어주신 그분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참된 사랑은 기다린다’ 강의를 들은 후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를 갖게 되었다. 난 왜 결혼하기 전 성관계를 해선 안 되는지 깨달았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다)을 어떻게 대하고 존중해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존중하는 지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고, 또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부류의 사람이다. 성관계는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일로 흡수되어 버렸다. 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 성관계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또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성관계를 가지고 나면, 우린 성관계를 그저 하나의 행위로 만드는 것이 된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관계가 아닌 정렬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다.

정렬적인 사랑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저 성관계가 되는 것이다. 난 하나님이 우리를 특정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배웠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번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올바르게 번식하는 것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해서 한 사람을 같이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절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랑은 우리 모두의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말이다. 그리고 정렬적인 사랑은 특별한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까지, 우리 자신 속에 신성하게 간직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다. 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정렬적인 사랑을 누군가와 나눌 시기가 되었다고 결정하실 때까지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킬 것을 약속한다. 

<번역: 양하영>

has done for me and the world.

Just recently after taking the “True Love Waits” class, I gained a sense of knowledge that I didn’t have before. I understood WHY you shouldn’t have sex until you are married. Through learning about how to treat and respect your fellow brothers and sisters, (everyone you meet is your fellow brother or sister) you learn how to respect yourself. We are a race of people who thrive on basic needs and will do mostly anything to fulfill them. Sex has become inducted into our diet as a task we must fulfill. After accepting God as my savior, I was able to rid my diet of sex. By having sex with that person who is not your true love (your true love should be that person you will give everything up for, the one you can’t live without), you have made sex nothing more than an activity. When you give yourself to that equal someone it does not become sex anymore, but passionate love.

Passionate love is only what two people who equally love themselves as well as each other can share, otherwise it is just sex. I learned that God made us to do specific things in life. As it is stated in the bible one of our tasks is to reproduce. Proper reproduction has to come from the unification of two people who love each other to the most extreme point that they will give up their lives to raise another person together.

Love has to be something that we all can show our neighbor, not just the ones who love us back, but especially the ones who do not. And passionate love is what we have to hold sacred to our selves until that special someone is ready to take on a journey with us. We cannot show love without showing ourselves respect first. So from here on I promise to hold myself sacred until God has decided it is time for me to embrace my passionate love with another. 




## 참된 사랑은 날 위해 기다립니다!

정지언 (6학년)

전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고 또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기독교인이 그렇듯이, 저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이 진짜라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성령 충만한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훌륭한 분들의 신앙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저렇게나 열광적인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 결심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답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갔고, 하나님은 언제나 날 위해 항상 그 자리에 계실거란 걸 깨닫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기다린다(True Love Waits)’는 저의 행동과 생각을 조심하도록 가르쳐주었습니다. 정말 성적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게 되면 나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참된 사랑은 기다린다’는 내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하고 싶은,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된 사랑은 기다린다’에 참여하면서 제 자신과 부모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고, 또 완벽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전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기다린다’를 통해 100% 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갑니다. 

<번역: 양하영>

## True Love Waits For Me


By Jiun Chung (6<sup>th</sup> Grade)

I was a Christian since day one of my life. I was raised in a Christian family and was brought up to be a great woman of God. But like almost every Christian, I had my doubts about God. Like “if other religions say that their God is the real God, how do we know if our God is the one and only God?”

Well, over the years, God has done great things on me. I’ve felt his grace and accepted Christ into my heart. I’ve been to several powerful retreats where I’ve heard wonderful speakers tell their testimonies about their personal walk with God. I thought to myself, if they can get that fired up about God, why shouldn’t I. I’ve decided that I want to truly worship God and truly take on the name “Christian”.

I’ve matured in God and came to know and trust that God will always be there for me. True Love Waits has really taught me to be careful of my actions and thoughts. It has really shown me what a big deal sexual sin is.

I have learned a lot about my future if I commit sexual sin. I know this is something I want to do and have to do in order to be a good Christian. I know that in everything I do, I’m representing our God Almighty. By participating in True Love Waits, I’m making a promise to myself, my parents, and above all to God to always try to make the right choices.

I know I’m not perfect and I never will be, but I long to be that person that truly deserves to be the Lamb of God. By doing True Love Waits, I’m getting one step closer to being that one hundred percent holy child of God. 






## 사탄의 유혹과 싸우리라

나준성 (8학년)

‘Tue Love Waits’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친구들을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바라보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며 불순한 생각들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으로 품은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버릇이 되며, 그 버릇은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결국 이 길을 택하는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전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크고, 또 그 사탄은 뱀처럼 조용히 다가와 천천히 우리를 움켜쥐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사탄의 유혹과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순수하고 성스러운 것인지 알았습니다. 이 반지를 받으므로 해서 저는 그 길을 선택하고, 저의 진실한 사랑을 만날 때까지 순결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번역: 양하영>



## True love waits

By Junsung Na (8<sup>th</sup> Grade)

I have learned a lot about love through the True Love Waits program. I have learned to see my peers as brothers and sisters of Christ, therefore I should not think of impure things, for what can be conceived by the mind becomes an action, which becomes a habit, which becomes the character, and ultimately the destiny of any person who chooses this path.

I know that the devil's temptation is great and he comes like a silent snake that slowly takes you in its grasp, but I promise to fight that temptation for the rest of my life. I have learned that abstinence until marriage is the pure and holy path and it is the path I choose by accepting the ring as a promise to God to keep myself pure until I find true love. 







##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지난 2월 29일 강요한 선교사의 오픈 강의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던 워싱턴 DC지부 4기 비전 스쿨은 28명이 등록한 가운데 입학식/오리엔테이션 (3월 10일)과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8주간 강의를 거쳐 지난 5월 19일에 있었던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그 대단의 막을 내렸다.

글/정리 - 유종우




지난 2월 29일 강요한 선교사의 오픈 강의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던 워싱턴 DC지부 4기 비전 스쿨은 28명이 등록한 가운데 입학식/오리엔테이션 (3월 10일)과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8주간 강의를 거쳐 지난 5월 19일에 있었던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8주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메릴랜드 캠퍼스 커버넌트 채플에서 예배로 시작되었던 모임은 종족 소개와 중보기도, 강의로 이어졌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조별 모임 시간을 끝으로 모임을 마쳤다. 여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간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지의 간증들과 함께 미전도 종족과 전문인 선교, 선교 명령과 소명, 단기 선교의 중요성, 미션 스피릿과 ‘백 투 예루살렘 (BTJ) 비전’, 한국학과 한국 교회사, 이슬람의 역사와 이해, 중보 기도과 영적 전쟁 등에 대해서 강의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종족들에 대해서 소개하며 나누는 시간 또한 가졌다. 특히, 4월 1일에는 김원기 목사님께서 교회론 강의를 해주셨다.

어른 비전 스쿨이 열리는 같은 시간에 옆 교실에선 13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가운데 워싱턴 DC지부에선 처음으로 어린이 비전 스쿨이 열렸다. 어린이 비전 스쿨에서도 함께 예배하며 부모님들이 그 날 배우시는 내용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함께 배우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졸업과 함께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졸업생들이 마음속에 한 종족을 품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그 종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섬기기로 결단했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 헬로쉽교회 안에 선교의 기름부음이 있기를 소망해본다. 하나님께서 헬로쉽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해본다.

이 지면을 통해 이번에 비전 스쿨을 들었던 분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며, 8월에 열릴 선교 캠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여러분들을 귀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김남식 (MD)



비전 스쿨의 광고를 보자마자 무작정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3개월 된 아이도 있고, 등록비도 둘이 합치면 부담이 되니 아내와 함께 듣기는 힘들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 비전 스쿨 들을까"라고 물어보자, 아내는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그럼, 나는?"하고 반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심뜯스치고 지나간 나의 솔직한 마음은 '아, 이리다 진짜 선교 가는 거 아니야?'였습니다. 상의 끝에 새로 컴퓨터를 마련하기로 했던 돈을 꺼서 아내와 함께



어린이 비전 스쿨

비전 스쿨에 출석하였습니다.

비전 스쿨은 2월 29일 강요한 선교사님(우즈베키스탄)의 오픈 강의로 그 막이 올랐고, 지난 3월 24일, 아프간에서 선교하시다가 아프간 피랍 사태 이후 추방을 받고 잠시 나와 계신 조은샘 선교사님의 간증이 우리 모두를 실크로드로 인도하였습니다. 아들과 아내와 저는 매주 월. 화요일 7시 30분 - 10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아들을 태운 유모차, 입고 온 옷, 성경책, 노트북 그제 전부였던 예배당이 바로 선교지라고 상상해 상상을 하며, 우리 세 식구를 선교지에 보내어 보았습니다. 몽골 민족, 알타이 언어 민족, 투르크 민족, 터키 민족, 아프간 민족, 모든 무슬림 민족을 만나며 그들이 살고 있는 집도 지나쳤고, 풍습과 문화를 감상했고, 순박하고 정 많은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며 오직 율법으로 지탱하고 있는 간절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이야기(HIStory)'를 귀 담아 들으며 떨시받고 상처받은 우리와 같은 '한'을 가진 민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터키 쿠르드에서 오신 김친구 선교사님께서는 잠언 17:17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났느니라" 는 말씀에 순종하여 '친구 없는 민족, 쿠르드족'의 친구가 되고자 헌신하신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날 밤 저와 아내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 나

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으니 당연히 이 모든 땅이 선교지라고 고백하였고, 하나님께 최전선(front line)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그분들처럼 선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989년 당시 전 세계에서 11,000여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종족으로 기록되었는데,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8년 현재 3,600여 미전도종족으로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전략적인 선교를 위해 미전도종족을 연구하고,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종족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떠올렸고,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꿈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비전 스쿨에서 김원기 목사님의 교회론 강의 중에 우리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사랑할 자신이 없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돈으로도 기술, 의학으로도 할 수 없다. 다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선교는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동에서 잘 나가던 성형외과를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하신 조은샘 선교사님, 8개월 된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이라크로 떠났던 허운유 선



비전 스쿨 졸업식




교사님, 김친구 선교사님... 모두들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가신 그분들 안에서 저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분들을 통해 저를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선교하면 순교'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나서 웬지 부담스럽고 '나는 아니겠지'하고 지나치고 싶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비전 스쿨에서 미전도종족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기도 응답해주셨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어 하루 종일 괴로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자기 전까지 실갱이를 하며 잠이 들었는데, 새벽3시에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은 제게 "너는 잠이 들었구나, 하지만 난 이 순간에도 아프단다"하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는 마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밤새워 괴로워해도 끝이 없으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순히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눈물로 뿌리신 씨앗들이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순교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동정(compassion)을 가졌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약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제 안에 자그마한 선교의 씨앗을 허락하셨습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나누고 싶습니다. 비전 스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싸움의 영'이 완전히 회복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혼 후 식구와의 갈등, 특히 저와 둘째 누나, 어머니와의 갈등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탄은 '싸움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하나 된 가정을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누고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 '싸움의 영'이 우리 모두가 인종과 나라를 넘어 하

나님의 한 자녀라는 진리를 무너뜨리고, '거룩한 전쟁(Holy War)'이라는 미명 아래 무슬림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과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싸움의 영'이 조선이었던 한나라를 한국과 북한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싸움의 영'이 빨리 회복되어서, 100여년 전 암흑과도 같았던 조선 땅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조선이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 HIS Vision... Back to Jerusalem (BTJ)

김윤진 (MD)




처음엔 3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8주 동안은 매주 월,화요일 저녁마다 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다가 오픈 강의를 들으면서 꼭 비전 스쿨을 들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매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전 스쿨은 그저 선교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 거리에서 매주 오시는 장로님 부부,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자마자 막 달려오시는 집사님들, 대부분 버지니아에서 오시는 인터콥 간사님들, 갓난아기부터 뛰어다니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아프간/시리아/터키 등 최 일선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던,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은혜'가 매 강의마다 저의 가슴을 벅차게 두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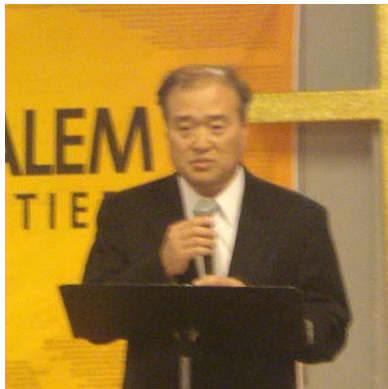
마음을 보게 되고, 겪게 되고,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줄은, 그렇게 아프신 줄은 예전엔 몰랐습니다.

언젠가 선교지에서 생애를 보내고 싶은 소망도 있었고, 몇 번의 이런저런 경험도 있었는데, 이번 비전 스쿨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는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시프트(paradigm shift)’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엔 선교는 특별히 부름받은, 어떤 사람들만 가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비전 스쿨을 통해 '우리는 모두 선교에 소명 받았다'는 것과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다시보게 되었고, ‘백투 예루살렘 (BTJ)’ 선교 운동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영기 (MD)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항상 나에게 큰 부담이 되었으며 내일 모레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한 번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비전 스쿨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새로운 많은 사실을 배우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날마다 점점 악해지고 있으며, 세상은 급속히 발전하는 새로운 현대문명의 이기와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 의해서 점점 배도의 시대로 가고 있으며,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

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열방,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셨는데 전 세계에 200여 나라에 24,000여 종족 중에서 아직 복음이 단지 않은 종족이 3,600여 종족이 남았다고 합니다.

비전 스쿨을 통해서 배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평소에 좀 알고 싶었고 궁금했던 이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러시아, 카프카즈, 시베리아 지방에 그렇게 많은 종족이 살고 있는지 몰랐으며 중앙아시아, 터키가 민족간의 분쟁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단기 선교팀 모두가 납치되면서 두 명의 순교자가 발생하여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의 그 생생한 체험담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아프게 했고, 평신도로서 한 가족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휴가 때마다 전문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간사님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으며, 이라크에서 사역하시다가 한국 정부의 명령으로 철수해서 이제는 시리아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 눈물 많은 선교사님, 터키에 한국인으로 처음 발을 딛고 터키의 역사와 전 아시아 대륙의 선교 역사와 모든 아시아 민족의 흐름을 상세하게 강의하신 선교사님, 한국의 선교 역사를 강의하신 목사님, ‘친구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부부 선교사님의 쿠르드족에 대한 헌신과 사역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지난 3개월간의 선교 비전 스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비전 스쿨은 평신도들이 주체가 되어 헌신하며 사역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보통 성경 클래스는 목사님의 세련된 말씀씨와 전문적인 성경 지식으로 좀 틀에 박힌 듯한 분위기가 일반적이는데, 평신도들과 선교사님의 좀 어눌하면서도 뭔가 좀 모자라는 듯한 같으면서도 그 가운데 담겨진 더 진지한 모습과 열정과 헌신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온 몸을 바친 헌신과 사랑과 열정에서 세상살이에 찌든 우리들과 비교해 보면서 한 차원 높은 경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부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전 스쿨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깊은 은혜의 자리에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여름 유가는 선교 캠프에서!!!

### 선교캠프 2008

- 언제: 2008년 8월 13일 (수) – 16일 (토)
- 어디서: Marriot Convention, Phoenix, AZ
- 캠프 및 등록 안내: <http://intercpworld.com>
- 등록 마감: 1차 등록 (6월 30일), 2차 등록 (7월 20일) – 당일 등록도 가능하지만 등록비는 빨리 등록할 수록 저렴합니다.
- 문의: MD - 유종우 (908-868-7918), 전쟁오 (919-606-7837)  
VA - 김성국 (571-216-4472), 김은경 (703-969-0377)

선교캠프는 지나온 시간들을 말씀 앞에 돌아보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1,000여 명의 미주 한인교회의 신실한 선도들이 모여 예배와 말씀, 강의, 간증, 그리고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BTJ Festival, 교제를 통해 온전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개인과 가정, 교회와 열방의 외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the Time History Kingdom  
시대 역사 나라

2008 BTJ VISION  
선교캠프

2008.8.13-16  
»포스터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 [www.intercpworld.com](http://www.intercpworld.com)  
신청문의는 각 지부별로 해주세요 (곧 인터넷 등록도 실시합니다)

Mesa Convention Center, Phoenix, AZ

#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 ... 중국

신장 위구르 땅은 또한 세계선교의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파되는 복음의 길 실크로드의 중요한 길목에 있어서 그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며 탁월한 전쟁을 수행할 강력한 군대들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땅이기도 하다  
글 - 유종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7)

## 실크로드의 대 관문

### - 신장 위구르 (Uyghru) 자치구

중앙아시아 대륙 실크로드의 중간에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이곳에는 사막을 가로 지르는 길이 2,555km의 대 장벽 천산 산맥이 있다. 이 천산 산맥의 출발점인 위구르는 중국 소수민족 중 3번째

로 가장 큰 민족으로서 중국 전 영토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며, 몽골, 러시아, 카작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등 8개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실크로드의 대 관문 지역으로 동서 문명교류의 통로로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해왔다. 신장 위구르 땅은 또한 세계선교의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파되는 복음의 길 실크로드의 중요한 길목에 있어서 그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며 탁월한 전쟁을 수행할 강력한 군대들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땅이기도 하다.

## 위구르의 아픔

위구르는 ‘연합한’, ‘동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역사 속에서는 그 뜻과 상관없이 잘 연합하지 못하고 많은 아픔과 좌절을 겪으며 지내왔다. 8세기 경 중앙아시아에 ‘위구르 제국’을 세운 적이 있으나 곧 멸망당하고 그 후 한 번도 자신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열강들의 침략을 당하다가 지금은 중국내 소수민족으로 ‘자치구’란 이름하에 거의 식민지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다. 위구르인들은 여러 번 독립을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고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억제 정책으로 위구르 민족의 독립은 현재로선 불투명해 보이는 실정이다.





## 이슬람의 강한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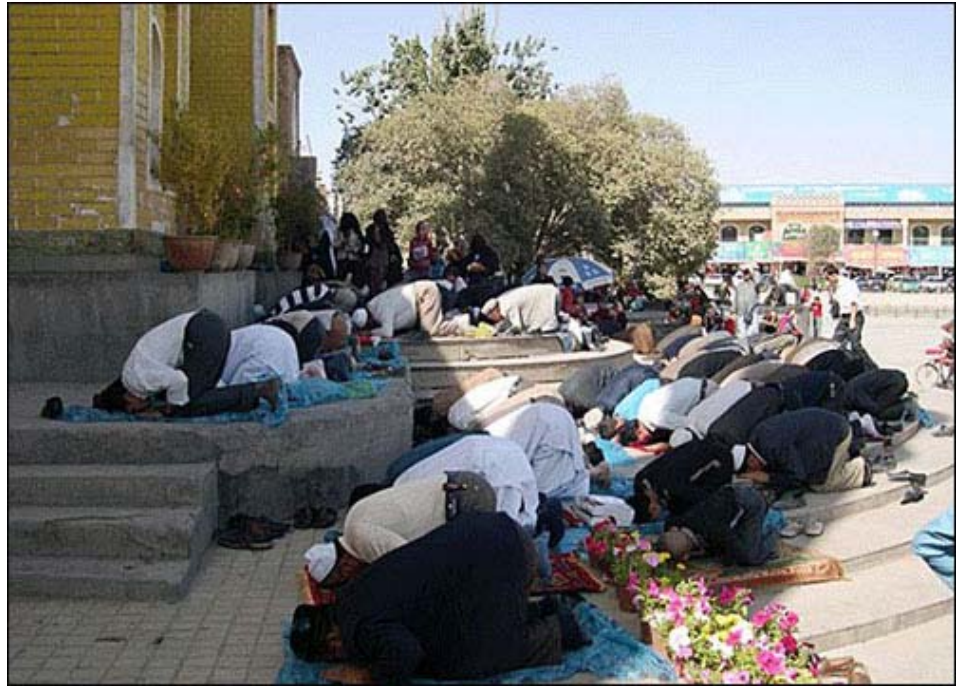
위구르인들은 중국의 체제에 반감하는 행동으로 천산산맥을 넘어와 그들에게 전해진 이슬람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이슬람을 통하여 민족성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슬람은 신장 위구르 땅에서 실크로드를 향해 행진하는 복음의 불길을 저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 땅은 서쪽을 향해 행진하려는 기독교의 세력과 천년동안 자기 땅이라고 지켜 온 이슬람간의 첨예한 대립 상황 가운데 있다. 우리가 실크로드의 요충지인 이 신장 위구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으로 돌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천산산맥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증거되어야 할 때이다.

## 중국의 ‘서부 대 개발 정책’

현재 중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금까지 동부 연해지역을 위주로 발전한 경제를 서부지역과 균형을 맞춰 발전시키기 위해 ‘서부 대 개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실크로드를 따라 복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기회이다.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추구함으로 선교의 문이 열렸듯이 이제는 ‘서부 대 개발 정책’을 실시함으로 광활한 서부지역에 대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이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진행되고 있는 일로 주님의 다시 오실 대로를 여는 거룩한 일이다.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자생적으로 세운 선교단체를 통해 이미 여러 명의 한족 사역자들이 신장 땅에 와서 위구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독립분쟁으로 인한 상처와 반감으로 인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평화의 중재자로서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위구르 민족의 복




한 이슬람사원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음의 역사와 한족의 거대한 선교부흥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주실 것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40:3-5)

## 위구르를 위해 함께 기도해요!

1. 오랫동안 위구르를 묶고 복음의 서진을 막았던 이슬람의 영이 무너지길 바란다. 중국교회의 백만 대군은 일어날지어다. 이제 복음이 천산산맥을 넘어 실크로드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신속하게 증거되게 하소서.

2. 위구르 땅 가운데 강력한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시고, 위구르 가운데 전례 없는 영혼의 대추수와 부흥을 주시옵소서. 

## 입찰 경매(Silent Auction): 선교 후원을 넘어서 성황리에 마치고

오래 전 시간인 만큼 그 때가 가물가물해서 또렷이 기억도 나지 않는 3월 4일 화요일 모임에서 입찰 경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그 담당자로 지명된 것이었다.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하면 되겠다’는 흥미로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글 - 이연일



지난 5월에 작은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으니 벌써 14~19년 전의 일이다. 두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PTA활동이 왕성하던 학교였다. 우리 부부는 이곳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 그저 학교의 시스템이나 배우고자 하는 뜻에서 학교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을마다 진행하는 카니발과 ‘입찰 경매(Silent Auction)’이었다.

카니발은 미리 티켓을 구입하면 6장에 \$5불씩 판매하며 당일 다양한 게임과 상품을 내놓고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을 즐겁게 하는 요인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멋진 옷을 입고 준비된 물 위에 앉아있는데 공이 적중하면 물로 빠지게 되어있는 ‘덩크 탱크

(Dunk Tank)’, 땀을 흠뻑 흘리게 만드는 ‘문 바운스(Moon Bounce)’, 조랑말을 타고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시간 등이 기억난다. 또 강당 안에서는 커다란 책상을 최대한 길게 늘어놓고 다양한 상품이 전시되어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린다. 반별로 주제를 주어 커다랗게 그리고 멋지게 꾸며놓은 바구니, 선생님들이 성의껏 준비하여 내놓은 나름대로의 상품, 학부모들이 내놓은 귀중품, 그리고 이웃에서 협찬한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때 모아지는 금액이 대략 \$30,000정도였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이 학교와 학부모의 수고로 모아지는 것이다.

오래 전 시간인 만큼 그 때가 가물가물해서 또렷이 기억도 나지 않는 3월 4일 화요일 회의에서 입찰 경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그 담당자로 지명된 것이었다.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하면 되겠다’는 흥미로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교회에선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호기심을 안고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다.

대략 내용 파악이 된 뒤 주보에 광고를 하였다. 분명히 바자나 야드 세일과는 구분이 되는 것이며 홍보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취지를 설명하면서 물품이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서비스, 기술, 봉사 등을 부탁하였다. ‘왜’ 2008년 여름 단기선교를 가는 중, 고등부 학생들과 자마이가 단기 선교팀을 후원하는 것.

‘어떻게’ 상태가 우수한 물품을 교회에 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며, 물품 후원이 쉽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서비스 부문에 적절한 수량을 후원하면 그 또한 필요한 사람이 저렴한 가격에 경쟁하여 구입하는 것.

‘무엇을’ 명품가방, 다양한 모양의 손목시계와 벽시계, 넥타이, 치과 진료, 여름 별장 빌려주기, 헤어 컷, 예방주사, 영어 공부, 아기 돌봐주기, 식당, 귀금속, 운동경기 티켓, 신문 구독, 다양한 그림의 액자, 화장품, 악기, 식사 접대, 기타 강습, 집단장, 옷수선, 성능 좋은 물건 등등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리고 미적 감각과 센스가 있는 몇 몇이서 종이전문 판매점을 찾아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의 올드타운을 갔다. 품목별로 어떻게 소개하고, 소개함에 단장을 어찌하는 것이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가를 실제로 보면서 공부한 것이다. 필요한 종이를 구입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몇 회에 걸쳐 진행한 뒤 드디어 방 한편이 부족하게 물건이 들어왔다. 참으로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실 수가? 하고 놀랄만한 물품도 많았다. 교인들은 물론 교회 주변에 교인들과 친분이 있는 업소를 찾아가 취지를 설명하고 후원을 받기도 했다.

드디어 경매 일주일 전인 5월 11일 교인들에게 경매가 무엇이며 어떻게 한다는 것을 실제 보여주자는 뜻에서 설명회 날을 준비했다. 이른 아침시간에 나와 상품 진열할 자리를 만들고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진열하고 대략의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였다. 모든 상품의 가격은 시중 가격의 1/3~1/4 정도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3부 예배까지 마친 뒤 다시 일주일 후를 기약하며

물건을 거둬들이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파악이 된다. 이렇게 많은 물품과 서비스가 과연 임자를 잘 만나 유용하게 쓰이고 선교 후원도 잘 될까? 조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을 찾는다.

그렇게 잠 못 이루고 마음 조이던 일주일 후인 5월 18일(일), 드디어 진열이 되어 손님들 맞는다. 물품마다 가격을 적어놓은 종지와 상품번호가 주어지고 경매에 참여하는 분들마다에 개인의 고유번호가 주어진다. 그리고 물품의 인기와 비례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금액도 위로 위로 올라간다. 다양한 품목인 만큼 당첨자 발표시간을 세 번에 나누어서 실시했다. 첫 번째 개봉하는 오후3시 원하는 품목이 저렴한 가격에 ‘내 것’이라고 확정되자 기쁨과 동시에 주머니는 뚝뚝 해진다.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던 냉장고를 끝으로 5시까지 이렇게 하나씩 주인 찾아 가고, 남아있는 물품에 당첨된 임자에게 연락하고, 경매에 나온 물품과 서비스 모두가 판매되었다.

안도와 함께 얼마나 모였나하는 궁금증이 든다. 전체 수익금을 헤아려보니 그동안의 피곤함은 사라지고 입가에 미소와 감사가 남는다. 귀한 물품을 거저 주심에 감사, 그 물품을 구입해 주심에 감사, 바쁜 시간 중에 힘을 모아 수고해 주심에 감사한다. 감사의 결정체가 약 \$8,500이다. 이 가운데 \$5,000은 예정대로 중고등부와 자마이가 단기 선교팀을 위해 사용하고, \$3,000은 내년도 ‘NCFC 장학금’을 준비하는데 종자돈으로 모아두고, \$500은 중고등부 오케스트라 후원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제 1회 오케스트라 공연을 마치고

**오케스트라, 음악적인 실력과 열정이 없었다면,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글 - 이대훈 장로 (오케스트라 단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 티모시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인 5월 18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연습하여 아름다운 악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12명으로 시작된 티모시 오케스트라, 처음에는 단원들 간 기량의 차이도 있고 악기의 종류도 많이 부족했지만 이형기 지휘자님의 인내와 열심으로 단원들을 이끌어주어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위해 단원들은 늦잠자고 싶은 매주일 아침 8시 50분까지 교회에 모여 연습에 임했으며, 부모들 또한 아침 간식을 마련해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연습을 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팀웍이 생겨나고 실력이 향상되면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1부 예배 찬양 사역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기 지휘자님은 찬양과 경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지휘뿐만 아니라 음악을 악기별로 편곡하는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물론 음악적인 실력도 중요하지만, 오케스트라는 열정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귀한 사역자를 헬로쉽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오디션을 통해 여러 명을 보강하였는데, 특히 몇몇 학생들은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헬로쉽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티모시 오이코스

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악기로 찬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견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뿐 아니라 주위에 전도의 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영어권의 마크 코스코(Mark Kosko)가 트럼펫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어른이 동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고 든든한 마음이 생겼으리라 믿습니다. 한어권 장년들도 동참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편 33편 2-3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꿈이 있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한어권과 영어권, 장년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어권 예배에서도 오케스트라와 워십팀이 함께 연주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회중이 한가지의 악기 또는 소리 나는 어떤 것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로, 악기로, 또는 다른 소리로 찬양하는 그 날을 꿈꿔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21)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티모시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 남성분들 ‘짱’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어머니들을 위해 남성 교우들의 접대가 준비되었고 감사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친교실로 안내되었다. 흰색 식탁보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들이 예쁘게 줄을 지어 준비되었고, 사랑의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진 김밥이 남성들의 손에서 배달되자...

글 - 김티나

지난 5월 11일 버지니아 캠퍼스에서 있었던 어머니날 주일은 인상 깊어 두고두고 남을 예배였다. 흰색 셔츠와 검정색 바지를 차려입은 남성만으로 구성된 예배팀의 찬양으로 예배는 시작되었다. 그들의 헌금송과 지경애 권사의 어머니께 감사하는 눈물어린 간증과 김원기 목사님의 행복한 가정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실천으로 옮긴 남성 교인들의 정성과 수고로 아주 절묘한 조화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비가 오는 바람에 교회 대청소가 미루어져 아침부터 교회 주방은 남성들로 분주했다. 칼을 다루는 솜씨와 계란 지단을 부치는 실력은 가히 여성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이렇게 잘할 수가....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을까. 젊은 사람들 근처도 못가고 배회하는 장로님들은 말로만(?) 그들을 격려하고 웃음으로 주방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어머니들을 위해 남성 교우들의 접대가 준비되었고 감사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친교실로 안내되었다. 흰색 식탁보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들이 예쁘게 줄을 지어 준비되었고, 사랑의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진 김밥이 남성들의 손에서 배달되자 어머니들의 감사어린 탄성과 10가지 종류의 나물로 깔끔하게 그릇에 담긴 비빔밥, 과일, 케이크 등등.... 이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뎅국과 곁들여 먹는 비빔밥, 왜 이리 맛있는지.... 배가 고파서 그런 것만은 아닌 정말 맛나게 먹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니 얼마나 알뜰히 장을 봤는지... 전교인을 단돈 327불에 모두 먹였다면? “와~~” 하는 감탄이 나오기도 남는다.


남성교우들의 애교어린 재롱 “Happy Mother’s Day. We Love You” 와 큰 팔을 높이 들어 사랑의 하트를 마구 쏘주며 어머니들을 격려하고 황홀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어머니들은 잔잔히 밀려드는 감동과 함께 행복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다.

교인들 사이에 오고가는 말들을 적어본다.

- “여자분들은 오늘 하루 가만히 계세요. 남성분들이 화장실도 모셔다 드립니다.”
- -남성들 사이에 오고 간 말 - “우리 오늘은 부엌에서 서서 밥 먹어야 하나?”
- -“20년 넘게 신앙생활 해봤지만. 어머니날 이런 대접은 처음이네. 사람은 오래살고 봐야해.”
- “오늘 목사님 설교하고 딱~이네.”
- “돌아보니 내가 남편에게 너무 인색했나봐. 집에 가서 잘 해줘야지.”
- “Father’s Day가 언제지? 우리도 받았는데, 좀 부담스럽네...”
- “우리도 남성들을 위하여 멋지게 베풀고 일년 내내 우려 먹어야지”
- “나 울고 싶어. 남성들이 왜 이렇게 멋진 거야...ㅋ ㅋ”
- “남성들에게 주방을 물려주면 어떨까?”
- “여성들이 매일 집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곤란한데... 괜히 이상한 버릇 들이는 것 아닌가?”
- “남성들이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으면 더 자주 시켰을 텐데.”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희생하고 감동받으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일을 목격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나고 보람된 일이다. 모든 남성분들이 설거지까지 마무리하며 수고를 했지만 그들의 희생과 봉사가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행복을 느끼게 했다. 여성들을 흐뭇하게 했으며 더욱더 잘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배우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로서의 특권임에 분명하다.

남성분들 정말 ‘짱’이었어요! 



#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 6월의 추천도서



### 추천도서 I

## 그 길을 걸으라

저자: 유진 피터슨



### 책 소개

청서나 기독교 역사에 등장한 다양한 '길'을 탐색하면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걸어야 할 길을 모색한 책. 지은이 유진 피터슨은 '길'을 소중히 여겨 파락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와 현장성, 인격성이 전해된 길, 우리를 둘러싼 손쉬운 방식의 유혹을 밀쳐내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 저자소개

유진 피터슨 (Eugene H. Peterson) - 개신교 영성 신학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목회자.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는 리천트 대학에서 영성 신학을 가르쳤으며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30년간 목회자로 섬겼다. 현재 리천트 대학의 석좌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 <친구에게-우정으로 양육하는 편지>, <거룩한 침대, 거룩한 침대>, <시편으로 드리는 매일기도>, <다윗-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등이 있다.

### 추천도서 II

## 기도

저자: 필립 안시



### 책 소개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의 지은이 필립 안시의 기도에 관한 신앙서적. 특유의 신선하고 독특한 시각으로 기도와 관련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간다. 도서관을 뒤지고, 기도와 관련한 책들을 두루 섭렵하며, 평범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는 등 저널리스트로서의 그의 역량은 이 책에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기도에 관해선 누구나 초보자라고 말하는 지은이는 마치 유적지를 어슬렁거리며 질문을 던지고, 곰곰이 생각해져 전후사정을 살피는 순례자처럼 기도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난제를 점검하고 탐색한다. 이 순례 속에서 지은이는 읽는 이로 하여금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는 왜 해야 하는지, 왜 응답 받지 못한 기도가 많은지 등 기도를 둘러싼 의문들을 해소하며, 기도 또한 배움과 훈련, 의지적 노력이 필요한 훈련임을 깨닫게 한다.

그리하여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임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우정의 삶임을, 환희의 순간도 초초해서 미칠 것 같은 시간도 기도임을 알게 된다. 일과 묵상, 의심과 확신, 인간의 간청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야기와 함께 지은이의 균형 감각이 돋보이는 이 책은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하자고 청중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

(MD 캠퍼스, 2008년 5월 24일)

# 싱그럽고 뿌듯한 고등부 졸업만찬



(왼쪽 부터) Troy Agard, 교사 Seth Hammontree, James Han, Hyung Ki Na, Amee Kim, Young sup Lee, Judy Kim, James Hwang, Erica Lim, Peter Kim, Matthew Kim, 교사 Sang Na





매년 5월, 6월이면 고등학교 졸업식이 카운티별로 진행된다. 그 시기에 맞춰 교회의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졸업 만찬이 실시된다. 11학년 재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만찬의 주제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학부모들은 음식과 실내장식을 도와준다.


오랫동안 중고등부 교사로 사역하던 Sang Na, Seth Hammontree 교사와 20여명의 졸업생을 축하하며 진행된 5월 24일(토) 오후 5시는 다른 날의 오후보다 더 분주하였다. 90여명의 재학생과 부모님, 졸업생 가족들이 모여 진행된 만찬은 11학년 교사 Frank Lee와 함께 준비 자금 마련을 위해 쿠키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내용에 따른 세부 사항을 모아 준비하느라 11학년의 5월은 바쁘게 움직인다.

12학년 교사인 Seth Hammontree가 해군이었다는 상기하며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를 넣은 것을 테이블의 센터피스로 장식하고 푸른 돌로 멋진 바다를 연상시켰다. 실내 장식이 마무리 될 무렵 학부모들의 음식 준비도 거의 맞추어 준비완료이다.

Edward Chung, Sonja Chae의 사회로 만찬은 졸업생과 재학생의 게임을 시작으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졸업생 한사람 한사람의 성장과정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며 아름다운 시절을 지나고 있음을 다시금 느낀다. 이어서 학생마다의 달란트를 담은 패러디 슬라이드를 보였는데 앞으로 성실한 가정, 건강한 교회, 힘찬 미국, 단합된 크리스찬을 만들어 나갈 일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밝게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부모의 보살핌 아래, 김모세 목사의 열정과 든든한 우정으로 결속된 그들만의 풍성함을 맛보아 알기에. 싱그러운 그리고 보람찬 5월이 지나고 있다. 



### A Message from Pastor Moses

The 2008 seniors are a special group of students. You had interesting teachers in Sang Na and Seth Hammontree, Sang Na is the tallest teacher you will ever meet and Seth is the only non-cussing Navy man in the world.

Y'all are a good looking group. God blessed you with special facial features that I will never forget. God made you unique and He has done some special things through each one of you in Timothy Youth Ministry.

I would like to personally thank you for your commitment as students who persevered through thick and thin. You have done well and you are the stars of 2008.

A special thank you goes out to Seth and Sang.

I could not have asked for more caring, compassionate, and dedicated teachers.

Continue the journey of faith in Impact ministry.

Be th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Come back to Timothy and chill, pray, eat, and serve.

Don't forget to thank the juniors who have prepared this great banquet for you.

Jesus loves you and I love you too.

Your African Pastor, AKA P.Mo



# 나의 옛사람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글 - 장지원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 됐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마음에서부터가 아닌 겉모습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믿음 생활을 잘 했다는 나의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저 또한 제 자신을 속여 가며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을 헬로쉽교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들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남편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얼마전 김원기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시험에 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데, 신기하게도 저희 남편은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헌금과 십일조에 도전 중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예배시간에 졸음이 온다고 사탕 하나씩 먹던 사람이 지난주는 목사님 설교에 푹 빠져서 사탕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남편을 마음속부터 변화시키시는 중이십니다.

저는 제 자신이 아닌 제 주변 사람들이 변화받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풀종게도 제 자신이 먼저 깨지고 변화 받게 됐습니다. (마7:7)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나무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깨졌을 때, 제 모습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변화 받는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렘29:13)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영광 드립니다.



저희 오이코스의 목자 되시는 황인태 집사님 내외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분들과 귀한 인연 맺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집사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으로 성경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통하여 저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셨습니다. 집사님과 많은 대화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았고,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똑바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 새벽부흥회를 앞둔 며칠 전날 집사님의 권유로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에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못 읽고, 지금에서야 읽게 됐습니다. (전도서3:1)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저의 때가 지금인가 봅니다. 그 책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주로 믿음생활을 해 왔고, 하나님과 교제는커녕 내 생활하기가 바빴습니다. 멀거니 아무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성경책에는 손이 안 갔습니다. 남을 험담할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게으른 기독교인의 표본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보기를 포함한 하나님의 대한 것은 다 뒷전이였으니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딸이라 하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하나님 안에서 전혀 일치되지 않았습니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반복해왔습니다. 어떤 때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가도 문득 문득 두려움과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갈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제 생전에 처음으로 새벽예배를 나갔습니다. (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잠의 유혹을 떨치며 2주 동안 꾸준히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 기도 대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저 또한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희생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보다 하

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갖 고통, 고난, 목숨까지 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했지 정으로 드린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뉘우침과 회개 속에서 이제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린도후서 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새것이 와 있습니다. 이제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순종하려합니다. 나의 방법(My way)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God's way)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7:7)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

## 신임 오아코스 목사 임명 (5월 25일)



이창훈, 이지연




유진형, 유해정



위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체험하는 것은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믿으니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매일 매일 훈련시키시는 중입니다. 도대체 뭘 죄가 그리도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잊고 있었던 일까지도 다 지적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제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거짓말과 험담을 하며,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거의 다 한 셈이죠.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요즘 저를 고치시느라 바쁘십니다. 나쁜 생활습관, 말투, 먹는 것, 아이들 문제, 남편을 대할 때, 남을 대할 때, 요즘 저는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의 영이 아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지원은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딸입니다.

다.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어차피 내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주님 뜻대로 살립니다. 주님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을 알지만 설량 넘어졌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하셨습니다. (요일4:4)

전에는 간증문을 쓰라고 하면 쑥스러운 마음과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증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중요한 부분이니 다른 사람들이 듣고, 공감하여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기회라 하십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쓴 간증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빛나시길 원합니다. 

**어머니날이 있는 5월을 맞아 신덕준 집사가 인도하는 214 오이코스에서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풍성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다. (5월 4일 2부 예배 후)**



# 인도네시아에서 온 편지

**저희는 꿈쟁이 요셉 가정입니다. 사역지로 가기 전 그곳에서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을 꾸어 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D-종족의 복음화입니다. 강한 무슬림인 그들이 기존 기독교(종교) 세 계로 뿔뿔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오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고 우리와 같은 형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공동체를 만들고 확산해가는 것입니다.**  
글 - 이요셉, 이에임 선교사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4-5)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해 있고 거의 모든 나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이 있지만 여전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들어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수많은 영혼을 바라봅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보다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로 옆의 이웃인 무슬림들은 예수의 생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쿠란에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기록들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그려 봅니다.



## 과정과 비전(꿈)

너무나 강한 무슬림인 D-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문인선교사로 파송되어 인도네시아에 입국한지 2년이다 되어갑니다. 6월 말 혹은 7월 초에 저희들의 사역지인 S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즈음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1년은 이곳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학생의 신분으로 걸음마를 건듯이 살았습니다. 한 마디 말도 할 줄 모른 채 낯선 마을에 낯선 이웃들 낯선 집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는 법을 배웠었던 그래서 매일 매일이 신기하고 흥분되던 시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공부 기간을 마친 후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공학박사의 전문직을 이용한 일반 대학 교수 신분을 포기하고(D-종족을 향한 사역, 접촉, 시간 등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플랫폼(기술 자문회사)을 운영하기로 전환한 후 1년간 J사에서 한 화학회사 연구책임자로 있으면서 실질적인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첫 1년간의 생활과는 달리 한인들 속에 살게 되어 생활 여건은 좋아 졌지만 저희들의 선교사로서의 심적 어려움은 컸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 선교사는 공장에서 무슬림 근로자들을 사귀며 상황을 떠나 무슬림들과 친구가 되고 이슬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에임 선교사는 신앙이 없는 이웃 한인들과 교제를 깊이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동시에 여러 훈련 프로그램과 섬김의 기회들이 주어져서 분주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1년간 공장에서 신제품 개발을 하고 상업화 공정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짧은 기간 전문지식을 살려 성과를 내게 되고 이어서 S시에 새롭게 운영할 기술자문회사의 파트너로 돈돈한 관계를 계속해나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듯 지난 2년간은 D-종족 지역으로 가기 전 준비의 시간을 가진 시기였고, 비록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D-종족을 알고 이들을 위해 헌신한 지 10년이 되어서야 전문인으로 인도네시아에 나오게 된 것을 고려하면 좀 더 현지에서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S시에서의 삶과 사역을 두근거



리는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꿈쟁이 요셉 가정입니다. 사역지로 가기 전 그곳에서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을 꾸어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D-종족의 복음화입니다.

강한 무슬림인 그들이 기존 기독교(종교) 세계로 뽑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오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고 우리와 같은 형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공동체를 만들고 확산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비록 대학 내에서는 아니지만 운영할 기술자문회사를 통해 화학공학 관련 인재를 채용하여 교육시키고 외국(싱가포르, 한국, 미국 등)으로 유학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능한 인재로서 동시에 훈련된 주의 제자로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제자양육을 하는 꿈을 그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를 섬기는 것입니다. D-종족 가운데 리더들을 동원하고 훈련하여 타 종족, 타국의 무슬림을 향해 선교사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에 동시에 그분이 이루어가시리라 믿습니다.

#### 빠울루스 훈련과 G-KomNet 컨퍼런스

지난 4월 한 달간 한국인을 위한 빠울루스 훈련이 B시에서 있었습니다. 이 훈련에 동참하여 섬기고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금 사역에 대한 정리와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현지인 사역자들의 강의가 커다란 도전이 되었는데, 다양한 배경과 신분을 가진 분들이 각자의 무슬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이루시기 위하여 기독교인은 물론이요 무슬림까지 세우셔서 무슬림 가운데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며 영광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이 훈련을 거치고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모임인 G-KomNet의 컨퍼런스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각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이 모여 각자의 사역을 소개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었던 현지인 사역자로부터 배신을 당해 어려움에 처한 분도 계시고, 비즈니스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주며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 이제 막 사역지에 들어가 사역의 기초를 놓고 있는 분 등 다양한 자신의 사역을 발표하고 기도하면서 무슬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격려하고 힘을 모으는 시


간이었습니다.

#### 동원과 사역지 방문

이번 훈련에 참석한 BS 형제는 제가 분당 샘물교회 분립 개척 전에 섬겼던 한 교회의 청년회 후배입니다. 건축학을 전공하고 관련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이번에 회사를 사임하고 빠울루스 훈련을 참석하였습니다. 대학시절 선교에 헌신하고 특히 무슬림을 향해 사역하기를 소망하던 중 이번 훈련을 통해 많이 배우고 도전을 받았고 저와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D-종족을 위해 함께 사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동부지역을 방문하여 여러 위치의 현지인들을 만나고 JB 지역의 사역 플랫폼(컴퓨터 학원)을 보았고, 앞으로 사역할 그림을 그리고 일단 한 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인사이드스 선교사로 허입과 서울 영동교회 파송 그리고 후원자 그룹을 돈독히 세운 후 또 한명의 D-종족 사역자로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BS 형제의 앞으로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D-종족을 위해 아름다운 동역을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집

지난 기도 소식지에서 이사 갈 S시의 새집을 구하는 것에 대한 기도 부락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적절한 위치와 크기, 가격의 집을 바로 발견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술자문회사의사무실을 이곳에 운영하여 생활과 사역이 함께 이루어질 곳입니다. 



# 회당

누가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있다.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항상 먼저 회당을 찾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회당으로 갔다. 그렇다면 당시 회당은 어떤 곳이었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어떤 의미였을까?

글 - 오장석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행 13:14-15)

보통 회당이라고 하면 건물 자체를 일컫기도 하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회당이 꼭 건물을 일컫는 말이라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비록 따로 구분된 건물이 없어도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회당이 될 수 있다. 회당이라는 건물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문헌상의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부터 회당에 대한 단어가 나타나고, 기원전 1세기경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유대 왕국이 바빌로니아에게 패망한 뒤 유배당하여 이방인 사이에서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을 지칭

함)마다 회당이 존재했다고 한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100여개가 넘는 회당이 발견, 발굴되었고 디아스포라 지역에서도 여러 회당들이 발견되었지만 대부분 4세기 이후의 회당들이다. 반면 그 이전의 회당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아마도 AD 70년과 135년에 있었던 유대인의 반란으로 유대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따라서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일 수 있다. 이스라엘 내에서 발견되어진 회당 중 바울의 시대 또는 그 이전의 것으로 발견된 대표적인 것으로 감라(Gamla), 여리고, 헤로디움, 마사다, 가버나움, 막달라 등의 회당들이 있다.

디아스포라에 있는 회당 중 AD 70년 이전의 것으로 발견된 것은 텔로스와 오스티아의 회당 2개뿐이다. 텔로스는 에게해 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섬 중 하나였다. 하지만 텔로스는 한 때 해상 무역을 장악함으로 많은 부를 누리며 살았다. 오스티아의 회당은 지난 1961년에 발굴되었는데, 오스티아는

기원전 246년에서 221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념비.

내용은 아래와 같다.

On behalf of king  
Ptolemy and  
queen Berenice his sister  
and wife and  
their children,  
the Jews (dedicate)  
the synagogue





로마의 수도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다. 역시 부의 흐름이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이들 회당의 연대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는 보통 발견되는 토기와 동전에 근거한다. 토기는 지역과 연대에 따라 특정한 모습을 지녔기에 연대 구분에 잘 사용된다. 또한 동전에는 당시의 통치자의 얼굴이나 이름을 새겨놓았던 관계로 연대를 측정하기에 좋다. 그리고 건물에 새겨져 있는 기록들, 유대인들의 심볼이나 문헌상의 기록들에 근거하여 비교 판단한다.

지어진 회당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유대인 수에 따라 결정되어졌다 (그만큼 모이는 돈이 컸다는 의미이다). 즉 도시가 큰 경우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고, 그 중에는 커다란 규모의 회당도 있었다. 회당 건물은 어느 지역의 유대 사회에 있어서나 일반적으로 가장 크고 기념이 되는 건물로 종종 도시의 중앙에 자리잡곤 했다. 반면, 작은 마을의 경우에는 따로 지어진 회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 주택을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과도 같다.

당시의 사람들은 회당을 어떻게 불렀을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주로 ‘신아고개이(Synagogue)’라는 말을 사용했으며 의미는 ‘모임의 장소’였다. 반면 디아스포라 지역에서는 주로 ‘프로슈케이(Proseuche)’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의미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는 회당의 역할 중 가

장 중요했던 것이 역시 종교적인 면이었음을 보여준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BC 2세기 경 사데(Sardis, 현재의 터키)에서 나온 한 칙령에 “유대인들이 정해진 날(즉,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회당이 기도하는 건물이라는 것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모임의 목적이 ‘기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칙령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뿐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공동생활이 조직적으로 자리잡는데 큰 공헌을 했으며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예루살렘 성전의 경우, 여자나 이방인들은 유대인 남자와 같은 위치에서 참여할 수 없었던 반면, 회당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었던 것이다. 디아스포라의 경우에는 이방인들도 정기적으로 회당에 참석할 수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여자들도 매주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으며 대부분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델로스 회당의 경우는 남자와 여자를 벽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개개의 회당들이 비록 규모면에서나 건물의 내부 세부구조면에서 모두 다르지만 모든 회당들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면도 있었다. 특별히 회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기도하는 장소였다는 점에서 모두 기도를 위한 커다란 방을 가지고 있었다.



(왼쪽) 델로스 섬의 위치 (아래 왼쪽) 고고학이 발견한 옛 델로스의 모습 (아래 오른쪽) 델로스 섬에서 발굴된 회당의 자리







(왼쪽) 오스티아 항구 도시의 위치 (오른쪽) 오스티아 회당의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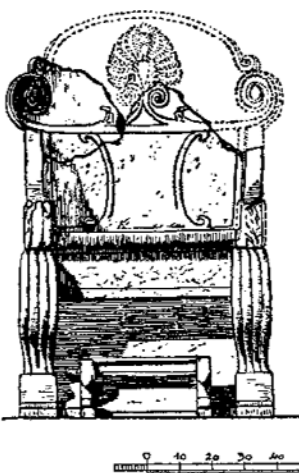
그 방에는 참석자들이 앉을 수 있도록 긴 의자들이 놓여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단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말씀을 담은 언약의 궤가 있으며 설교자가 앉는 자리가 있기도 하였다. 텔로스의 회당에서는 특별한 의자가 하나 더 발견되었는데, 이는 돌로 만들어진 의자라 마치 ‘모세의 의자(마 23:2)’를 연상케 한다.

회당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미쉬나(지난 수 백 년 동안 랍비와 장로들이 토론하고 결정한 것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일종의 법전, 또는 전해 내려오는 전통)에 따르면 유대의 아이들은 5세부터 성경을 배우고, 10세에 미쉬나, 그리고 15세가 되면 탈무드(유대교 규율과 유대교 도덕 등에 대한 랍비의 이야기를 담은 책)를 배우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회당에서 아이들에게 성경과 미쉬나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즉, 회당이 초등교육의 기능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은 모세오경에 대해 먼저 배우는 데, 그 가운데에서도 레위기를 제일 먼저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 모세오경 이후에 예언서를 배우고, 그 후에 미쉬나, 탈무드 순서로 배웠다.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다.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회당에 들려 잠시 공부하기를 권면하였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과 같은 커다란 도시에 있었던 규모가 큰 회당에는 도서관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식일에는 모세오경의 일부를 먼저 읽고 난 후 예언서의 일부분을 읽었다. 누가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안식일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전하고 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주로 회당장이 담당하였지만, 때로는 참석자가 나와 읽도록 하기도 하였다.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참석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

텔로스 회당에서 발견된 의자. 마치 ‘모세의 의자’를 연상케 한다.





고받았는데 이때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토론을 주도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회당장은 예배를 이끌고,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며 지역 사회 및 외부에 대해 회당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반면 장로들은 회당장에게 자문 역할을 하였으며, 행정적인 면과 교육적인 면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한 명 이상의 서기관이 있었는데 이들은 회당의 기록과 보관,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회당은 종교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밀접한 연관성이 지니고 있었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회당에서 있었다. 오스티아 회당의 경우는 부엌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엌 옆에는 만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유월절과 같은 유대인의 명절 때 함께 음식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이자, 또한 이 부엌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과 수프를 제공하는 구제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회당이 지역 봉사에도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또한 회당은 분쟁을 해결하는 일종의 법정 역할을 했다고 한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때때로 자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문제를 회당 내에서 합의를 보기도 하였으며, 흥미롭게도 로마 법정이 회당 내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고 전



오스티아 회당의 부엌 시설

한다. 요세푸스는 또한 유대인의 반란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의논하였다고 전한다. 때때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회당에 모여 그들의 의사를 결정하였다.

회당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의해 운영되어졌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 있는 회당일지라도 개개의 회당들은 나름대로 각각의 개성과 특징들이 있었다. 이것은 단지 건축물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패턴, 설교의 스타일, 성경공부에 대한 방법들도 포함된다. 예루살렘 성전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의식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회당은 성경 읽기, 개인기도, 공동 기도, 찬양, 설교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의식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

이렇듯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종교적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사회문화적, 정치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의 지역 공동생활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회당은 그들 삶의 일부분이었다. 바울은 그 회당 안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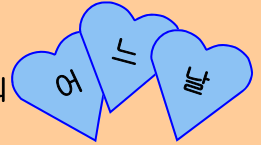


오스티아 회당의 입구

## 교회행사

- ◆ 5월 31일(토) - 6월 15일(토) 아프리카 단기선교 (MD)
- ◆ 6월 6일(금) 중고등부 졸업만찬 (VA)
- ◆ 6월 7일(토) '남성만을 위한 모임' (MD), 헬로쉽 한국학교 종강식 (MD/VA)
- ◆ 6월 13일(금) - 15일(일) 초등부 여름 수양회 - 현재 3학년 이상 (MD/VA)
- ◆ 6월 21일(토) 초등부 '아버지와 아들의 날' (MD/VA)
- ◆ 6월 29일(일) - 7월 5일(토) 중고등부 단기선교 (MD/VA)  
OH Workcamp, WV Workcamp, Jamaica 선교

헬로쉽의



심봤다! 두살짜리 딸에게 가장 잘 어울릴 선물이 바로 여기 있었네.  
(입찰 경매에서 메니큐어 세트를 보고)

\*발행인: 김원기

\*편집위원: 오장석, 이연일, 오진이, 지용한, 이창환, 안선희

\*인쇄: KOREA Monitor

Washington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Non Profit Org  
U.S. Postage  
Paid  
Suburban Md  
Permit No 3035

MD Campus: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Tel (301) 444-3100 Fax (301) 444-3115

VA Campus: 1439 Shepard Dr. Sterling, VA. 20164 Tel (703) 444.5634 Fax (703) 444.0567

<http://www.fellowshipusa.com> (제출하신 글이 편집 방향에 따라 수정되거나 게재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